

EBDT 그림검사에 나타난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애착과 양육태도 예측변인 연구*

김단비**, 임나영***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서행동 그림검사(Emotional & Behavioral Drawing Test; EBDT)가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성인 애착과 양육태도에 대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미취학 아동의 양육자로 총 117명을 표집하였고, 이들 표본에서 얻은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EBDT의 4가지 하위 요인(적대적 표출, 내면적 위축, 구조적 빈곤, 구조적 불균형)과 친밀한 관계 경험 척도(ECR-R) 및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 변인과의 경로분석을 통해 애착 및 양육태도에 대한 EBDT의 예측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내면적 위축이 성인 애착에서 불안 차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코칭 양육태도에서는 적대적 표출이 자녀의 감정을 통제하는 억압형을, 내면적 위축이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전환하는 축소전환형을, 구조적 빈곤이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감정코칭형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살펴보는 그림검사인 EBDT가 성인 애착 및 양육태도를 예측하는지 밝히며, 투사적 검사인 EBDT가 객관적 지표인 점수로 다른 객관적 검사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EBDT가 그림검사이지만 양화된 채점 방식으로 객관화된 검사로 활용 가능하며, 투사적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표준화를 거친 투사적 그림검사가 일반 객관적 검사의 기능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질적으로 양육자의 내면을 파악하는 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EBDT, 그림검사, 성인애착, 양육태도, 양육자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k.danbee90@gmail.com),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미술치료 석사 졸업

*** 교신저자(psyart@gachon.ac.kr),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미술치료전공 부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특히 영유아기는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부모는 시행착오를 통해 자녀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한다. 많은 어머니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자녀와 함께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행복해한다(이대균, 황주미, 2008).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족 형태로 변화하면서 부모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다. 핵가족 내에서는 육아를 도울 가족이 없고, 다른 부모와 경험을 공유하기도 어려워 부모들은 점차 이전 세대보다 자녀의 교육, 학교생활, 또래 관계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부모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정정호, 김선숙, 김희주, 장혜림, 김시아, 2021; 한교은, 전성희, 2020).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양육 방식과 부모의 양육 경험 사이의 차이도 부모에게 부담감을 주는 요인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맞벌이의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대가족 구조와는 달리, 핵가족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므로 부부 간의 지지와 격려가 중요해졌다. 한국 부모는 자녀를 완벽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이로 인해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커진다(Choi, Dancy & Lee, 2013). 특히 부모의 죄책감이나 불안은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책하는 부모는 과잉보호나 불안정한 양육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Mills et al., 2007),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분풀이를 하기도 하며, 이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유아기는 양육자로부터 무조건적인 보살핌이 요구되는 시기(안명희, 2010)로, 양육자의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 시기의 부모는 출산 후 수면 부족 등으로 생겨나는 극심한 피로(강경미, 이승연, 2016; 이대균, 황주미, 2008)와 개인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높은 육아 스트레스와 피로를 경험하기 쉽고, 이는 무력감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영주, 송연숙, 2007; 이근애, 전효정, 고은경, 2019).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부모의 애착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의 애착 유형은 자녀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안정 애착을 가진 부모는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녀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높은 결속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반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부모는 대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게 된다(Kobak, Cassidy, Lynos-Ruth & Ziv, 2006). 또한 불안 애착이 높은 부모는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다. 회피 애착이 높은 부모는 장기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불안이 증가될 수 있다(Rholes et al., 2011). 이는 성인의 애착 유형이 결혼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정경아, 김봉환, 2010). 따라서 부모가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할

수록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감이 있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자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불안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집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Adam, Gunnar & Tanaka, 2004; Ivanova, Achenbach & Turner, 2022; Pelaez, Field, Pickens & Hart, 2008). 부모의 심리적 문제는 무심한 태도뿐만 아니라 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Ammerman, Kolko, Kirisci, Blackson & Dawes, 1999; Goodman & Gotlib, 2002). 또한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부모가 우울증이나 폭력성이 있는 경우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뤄주지 못하게 된다(Hooper et al., 2015; Katz & Windecker-Nelson, 2006; Kujawa et al., 2014). 이러한 양육태도의 문제는 아동과의 안정적 애착 형성을 방해하고,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 박지연, 이은희, 2008; 이경숙, 엄혜련, 정영운, 2004).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대부분 아동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영유아기는 부모의 보살핌 및 양육 방식이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다. 양육자가 높은 육아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를 겪을 경우 자녀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녀는 정서적 불안과 행동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가 자녀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가 긍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개입 및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양육자의 정서·행동 문제를 평가하고 선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구가 필요하다. 성인의 심리적 문제, 애착, 그리고 양육태도를 살펴보는 다양한 객관적 검사인 질문지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방법은 문항이 많고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응답자가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Maharani, Wijayanti, La Kahija, Dewi & Ediaty, 2023; Masling, 1997). 반면, 그림검사는 객관적 검사에 비해 과학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피검자의 방어 기제를 낮추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ain et al., 2017). 따라서 양육자의 정서·행동 문제, 애착, 그리고 양육태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방어와 왜곡이 적고 의도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투사적 그림검사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자유롭게 그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림검사가 성인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검사하기 위한 그림검사 중 임나영과 양은주(2016)가 국내에서 개발한 EBDT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30개의 자극 그림 중 2~5개의 자극 그림을 선택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결합하고 이야기를 쓰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채점표를 통해 합산 점수를 산출하여, 4가지 하위 변인으로 나누어진 타당화된 검사이다. EBDT에서 4가지 변인은 내면적 위축, 구조적 빈곤, 적대적 표출, 구조적 불균형으로 구

성되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검사는 질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채점 체계를 이용하여 점수를 통해 양적인 해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EBDT는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선행 연구들은 연구 대상의 연령을 초기 청소년기부터 대학생까지로 확대하여 정서·행동 문제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도구로서의 활용 가치를 발견하였다(박상은, 임나영, 2017; 김수영, 임나영, 2019; 김나경, 임나영, 2020). 이러한 연구들은 EBDT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정서·행동 문제를 평가하는 데 유효함을 입증하였다. 특히, EBDT는 미취학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적대적 표출과 내면적 위축이 모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타당화(김단비, 2022)가 진행되었다. 이는 EBDT가 미취학 아동의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는 EBDT가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애착 및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BDT의 양적 채점 체계를 활용하여 EBDT가 애착과 양육태도를 예측하는지를 분석하고,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심리적 변인이 애착과 양육태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BDT는 단순히 점수화된 결과를 넘어, 그림 반응의 특성을 통해 양육자의 심리적 상태와 애착 유형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이다. 특히, EBDT의 그림 반응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내용은 성인 애착과 양육태도와의 연관성을 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 요소는 양육자

의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EBDT의 그림 반응 특성을 통해 그림과 내용이 어떤 애착 유형과 양육태도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를 통해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정서·행동 문제가 애착과 양육태도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밝혀내어,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로 인한 자녀 양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BDT는 다양한 심리적 변수를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양육자의 정서·행동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임상 장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의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는 성인애착을 예측하는가?

둘째,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는 양육태도를 예측하는가?

셋째,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의 그림반응 특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설명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미취학 아동 양육자 117명

이다. 연구 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눈덩이 표집을 병행하여 육아 정보 웹사이트에 모집 문건을 게시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대상들은 구글 폼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미취학 아동 양육자는 여성 96명(82.1%), 남성 21명(17.9%)으로 미취학 아동 어머니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35~39세(47%)의 양육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가 76명(65%)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성별은 여아(51.3%)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 수가 하나(60.7%)인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35~39세(4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정서행동 그림검사(Emotional & Behavioral Drawing Test, EBDT)

본 연구에서는 투사적 그림검사를 통해 성인의 정서·행동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임나영과 양은주(2016)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타당화 작업을 거친 후, 임나영(2023)이 표준화하여 자동화된 채점 시스템으로 양화된 점수를 나타내는 정서행동 그림검사(Emotional & Behavioral Drawing Test; EBDT)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물 5개, 동물 및 자연물 6개, 학교 환경 8개, 무생물 및 환경 11개로 구성된 30개의 자극 그림 가운데 2~5개를 선택하여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검사로, 그림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자극 그림들을 참고하여 따라 그릴 수 있다. 그림의 구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		117	100
성별	남	21	17.9
	여	96	82.1
나이	25~29세	7	6
	30~34세	38	32.5
	35~39세	55	47
	40~44세	14	12
	45~49세	3	2.5
거주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76	65
	비수도권(충청도, 세종,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41	35
자녀 성별	남아	29	24.8
	여아	60	51.3
	남아 + 여아	28	23.9
자녀수	하나	71	60.7
	둘	36	30.8
	셋	10	8.5

조와 내용을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적대적 표출(공격성, 폭력 비행, 친사회성 결핍, 분노 포함), 내면적 위축(사회적 고립, 우울, 자기비하, 무기력), 구조적 빈곤(묘사가 적고 빈약하며 자원이 적은 모습), 그리고 구조적 불균형(작은 공간, 치우침, 상호작용 부재, 구도 비율 불균형 포함)의 하위 요인을 평가하는 15문항을 채점하여 문제 요인들을 살펴본다. 또한, 그림 선택 개수 및 선택 이유를 알아보는 부가적 체크리스트 30개를 통해 추가적인 질적 해석이 가능하다. 채점표의 총합은 45점이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행동 문제가 높음을 나타낸다. 자동화된 채점 시스템을 통해 시각화된 프로파일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EBDT 하위 요인의 T점수가 65T 이상일 경우 임상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인에게 사용했을 시, 15개의 문항 중 구조적 불균형을 살펴보는 상호작용 및 거리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김단비, 2022), 본 연구에서는 총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64이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도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2) 성인 애착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성인 애착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Fraley, Waller와 Brennan (2000)의 친밀한 관계 경험 척도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Revised;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요인 분석과 문항 반응을 통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애착 불안(18문항), 애착 회피(18문항)를 측정하며, 7점 Likert 형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애착 불안 또는 애착 회피 유형에 해당된다. 애착 불안 및 회피 수준이 동시에 높은 경우 불안정한 애착을, 낮은 경우 안정 애착을 형성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92이다.

3)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Gottman(1997)이 개발하고 Gottman과 남은영(2007)이 공동 저술하며, 남은영이 번안한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는 81문항으로,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평가한다. 양육태도는 4가지 유형인 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형으로 구성된다. 각 유형별 합산 점수를 해당 유형의 문항 수로 나누어 각 유형별 점수를 산출한다. 네 가지 유형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이 양육자가 실천하는 양육태도 유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1044396-202108-HR-179-01) 진행되었다. 모집 문건을 통해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Google 설문지 링크를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경우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공지하였다. 비대면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검사지를 준비하도록 미리 안내하였다. 그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때, 현

재 그림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를 풍부하고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였다. 필요 시 연구자가 직접 연락할 것임을 공지하였으며, 그림검사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그림검사와 자기 보고식 검사의 총 소요 시간은 약 20~30분 정도였다.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의 채점은 본 연구자가 하였으며, 채점자간 신뢰도를 위해 본 연구자와 두 명의 미술치료 전공 대학원생이 동일한 자료를 채점하고 비교하고 일치율을 산출하였다. EBDT의 채점자 간 채점 상관관계 분석에는 Intra-Class Correlation을 사용하였으며, .82~.9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로분석은 다른 분석 방식과 달리 모든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지정하게 되므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보다 유용하게 확인할 수 있다(Jeon,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관 관계를 제시하는 상관 분석에서 나아가 이론적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는 경로분석을 적용하였다. 자세한 자료 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EBDT가 성인 애착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EBDT가 감정코칭 양육태도 유형을 예측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 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인 애착 및 감정코칭 양육태도 유형과 관련하여 EBDT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4. 자료 처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자료 처리를 위해 SPSS 28 version 및 AMOS 26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경로분석은 종속 변수와 둘 이상의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인과 모델을 평가하는 통계 분석의 형태이다. 경

Ⅲ. 연구결과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의 최소값, 최대값, 문항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

표 2. 척도들의 문항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척도	변수	가능한 문항점수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EBDT	적대적표출	0~3	0	9	1.42	1.53	0.82	2.14
	구조적빈곤	0~3	0	8	3.72	2.26	-0.05	-0.82
	내면적위축	0~3	0	10	4.11	2.73	0.33	-0.99
	구조적불균형	0~3	0	9	3.07	2.24	0.73	-0.04
ECR-R	불안	0~7	1	6.67	2.83	1.28	0.86	0.30
	회피	0~7	1.17	6.33	3.52	1.00	0.12	-0.04
	축소전환형	0~1	.24	.88	.54	.12	0.11	-0.09
감정코칭 양육태도	억압형	0~1	0	.87	.38	.20	0.51	-0.09
	방임형	0~1	0	1	.55	.19	0.22	-0.07
	감정코칭형	0~1	.35	1	.75	.13	-0.44	0.19

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EBDT에서 내면적 위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ECR-R에서는 불안 차원에 비해 회피 차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에서는 감정코칭형, 방임형, 축소전환형, 억압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 EBDT에서 나타난 성인 애착 예측

1)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성인 애착 유형 구분

Fraley와 Brennan(2000)의 제안에 따라,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애착 유형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 수의 중앙값 점수를 기준으로 불안 및 회피 차원 점수가 중앙값보다 낮으면 안정형, 불안 점수가 높으면 몰입형, 회피 점수가 높으면 거부형, 불안과 회피 점수가 모두 높으면 두려움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불안 차원의 중앙값은 2.61, 회피 차원의 중앙값은 3.61로 나타났으며, 이를 각 절단점으로 정하였다. 표 3에는 본 연구의 절단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애착 유형을 제시하였다. 애

착 유형의 빈도는 두려움형이 38명(32%)으로 가장 많았고, 안정형 34명(29%), 거부형 24명(21%), 몰입형 21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형 애착을 안정한 애착, 몰입형, 거부형, 두려움형을 불안정한 애착으로 구분할 시, 불안정한 애착은 총 83명(7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EBDT와 성인 애착의 상관관계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EBDT와 성인 애착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EBDT의 하위 변인과 ECR-R의 하위 변인과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불안 차원은 EBDT 총점($r=.21$, $p<.05$)과 내면적 위축($r=.33$, $p<.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적대적 표출($r=.15$, $p>.05$), 구조적 빈곤($r=.00$, $p>.05$), 구조적 불균형($r=.07$, $p>.05$)에서는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피 차원은 EBDT 총점($r=.16$, $p>.05$) 및 EBDT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p>.05$)를 보이지 않았다. ECR-R 총점에

표 3. 애착 유형의 빈도와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안정형	34	29
몰입형	21	18
거부형	24	21
두려움형	38	32
합계	117	100

표 4. EBDT와 ECR-R과의 상관관계

	적대적 표출	구조적 빈곤	내면적 위축	구조적 불균형	EBDT 총점
불안	.15	.00	.33**	.07	.21*
회피	.16	.05	.17	.03	.16
ECR-R 총점	.19*	.03	.32**	.07	.24**

* $p < .05$, ** $p < .01$

서는 적대적 표출($r=.19, p<.05$), 내면적 위축($r=.19, p<.01$), EBDT 총점($r=.19, p<.01$)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BDT와 ECR-R의 상관 관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3) 성인 애착에 대한 EBDT의 경로분석

EBDT와 ECR-R 간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EBDT의 각 하위 요인이 ECR-R에서 불안 차원과 회피 차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경로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경로 모형에서 각 경로

계수를 살펴보면, 내면적 위축은 불안 차원($\beta=.35,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적대적 표출, 구조적 빈곤, 구조적 불균형은 불안 차원과 회피 차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BDT와 ECR-R 경로 모형의 경로 계수는 표 5와 같다.

2. EBDT에서 나타난 양육태도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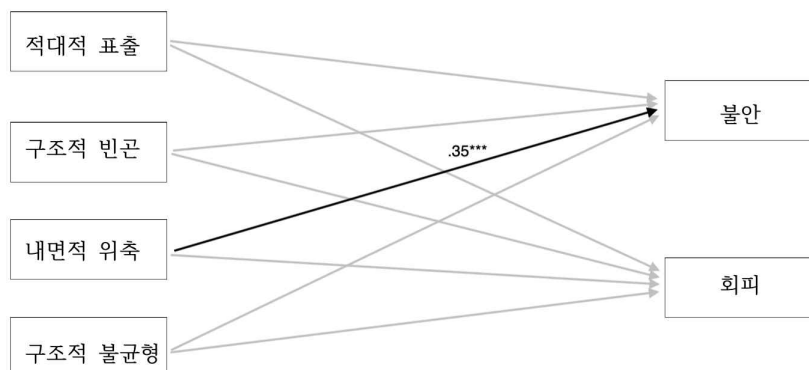
1)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와의 상관 관계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

표 5. EBDT와 ECR-R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적대적 표출 → 불안	-.25	-.02	1.52	-.17
구조적 빈곤 → 불안	-1.51	-.15	1.00	-1.51
내면적 위축 → 불안	2.90	.35	.86	3.38***
구조적 불균형 → 불안	1.20	.12	1.02	1.18
적대적 표출 → 회피	1.14	.10	1.24	.92
구조적 빈곤 → 회피	-.12	-.02	.82	-.14
내면적 위축 → 회피	.77	.12	.71	1.09
구조적 불균형 → 회피	.17	.02	.84	.20

*** $p < .001$



*** $p < .001$

그림 1. EBDT 하위요인, 성인애착 모형

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축소전환형은 EBDT의 하위 요인 중 내면적 위축($r=.21, p<.05$)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다른 하위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 관계($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억압형은 EBDT 총점($r=.27, p<.01$)과 EBDT의 하위 요인 중 구조적 빈곤을 제외하고 적대적 표출($r=.30, p<.01$), 내면적 위축($r=.26, p<.01$), 구조적 불균형($r=.23, p<.05$)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방임형은 EBDT의 모든 하위 요인과 유의한 상관 관계($p>.05$)를 보이지 않았으며, 감정코칭형은 구조적 빈곤($r=.24, p<.01$)에서만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와 의 상관 관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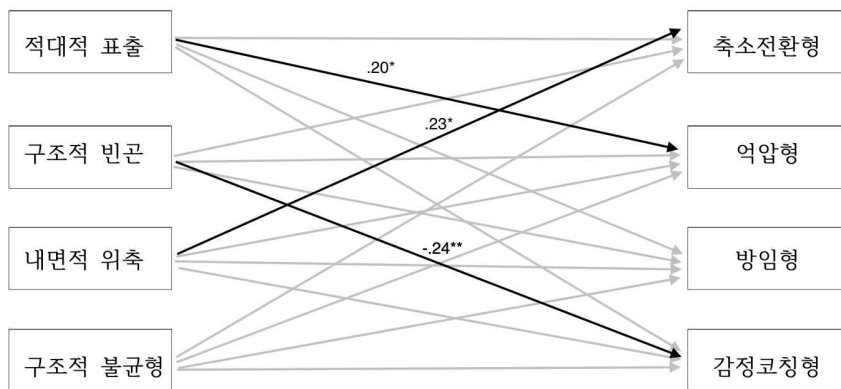
2)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대한 EBDT의 경로분석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EBDT의 각 하위 요인이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경로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경로 모형에서 각 경로 계수를 살펴보면, 적대적 표출은 억압형($\beta=.20, p<.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빈곤은 감정코칭형($\beta=-.24, p<.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면적 위축은 축소전환형($\beta=.23, p<.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불균형은 모든 감정코칭 양육태도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경로 모형의 경로 계수는 표 7과 같다.

표 6.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

	적대적 표출	구조적 빈곤	내면적 위축	구조적 불균형	EBDT 총점
축소전환형	.06	.14	.22*	.10	.18
억압형	.30**	.04	.26**	.23*	.27**
방임형	-.01	-.02	.12	.05	.04
감정코칭형	.03	-.24**	-.09	-.10	-.15

* $p<.05$, ** $p<.01$



* $p<.05$, ** $p<.01$

그림 2. EBDT 하위요인, 감정코칭 양육태도 모형

표 7. EBDT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경로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적대적 표출	→	축소전환형	-.01	-.07	.01	-.65
구조적 빈곤	→	축소전환형	.00	.08	.01	.76
내면적 위축	→	축소전환형	.01	.23	.01	2.12*
구조적 불균형	→	축소전환형	.00	.03	.01	.24
적대적 표출	→	억압형	.03	.20	.01	2.03*
구조적 빈곤	→	억압형	-.01	-.13	.01	-1.27
내면적 위축	→	억압형	.01	.15	.01	1.45
구조적 불균형	→	억압형	.02	.18	.01	1.78
적대적 표출	→	방임형	-.01	-.10	.01	-.91
구조적 빈곤	→	방임형	-.01	-.07	.01	-.72
내면적 위축	→	방임형	.01	.17	.01	1.52
구조적 불균형	→	방임형	.01	.07	.01	.63
적대적 표출	→	감정코칭형	.01	.12	.01	1.20
구조적 빈곤	→	감정코칭형	-.01	-.24	.01	-2.35**
내면적 위축	→	감정코칭형	-.00	-.07	.01	-.69
구조적 불균형	→	감정코칭형	-.00	-.02	.01	-.19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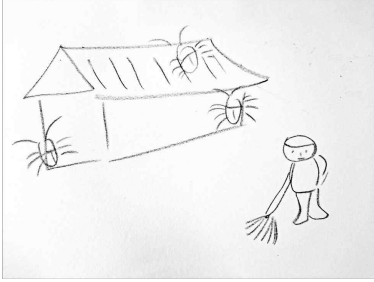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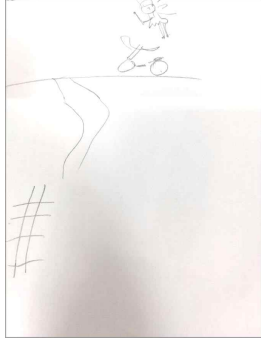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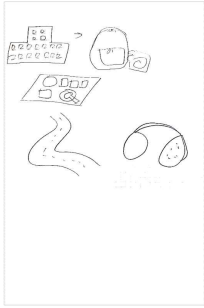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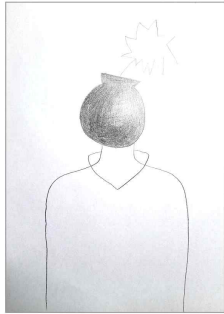
3. EBDT 그림반응 특성

한국판 성인 행동 평가 척도 자기보고용(ASR)의 매뉴얼(오경자, 김영아, 2010)에 따르면, 내재화 및 외현화 점수가 64점 이상인 경우 임상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절단점을 기준으로 임상 집단에 따른 EBDT의 특징적 그림을 선별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외현화 점수가 높은 그림으로 사례 1과 사례 2를 선별하였다. 사례 1에서는 벌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EBDT 내용에 드러나 있으며, 그림에서는 벌레를 외면하는 모습이 나타나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벌레를 치우고 싶으면서도 귀찮아하는 심리가 글에서 드러

나 무기력함이 나타난다. 사례 2는 그림 카드를 활용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지 않고 단순화된 형태를 보인다. 음악을 들으며 혼자 걷는 모습을 글에서 묘사하였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쓸쓸한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사례 3은 내재화 점수가 높은 그림으로, 그림 카드를 5개 미만으로 선택하였으며,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그림의 결합력이 부족하다. 사례 4는 외현화와 내재화 점수가 모두 높은 그림으로, 자신의 한계에 도달한 느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머리가 터지는 위험한 상황이 묘사되었다. 구조적으로 빈곤한 모습을 보이며, 내용에서도 모든 감정이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표 8. 정서행동 그림검사(EBDT)의 특징적 그림

사례 1	사례 3
	
제목: 벌레야 사라져줘	제목: 나비가 된다
내용: 집에 벌레가 많이 나타나서 여자는 벌레를 치우고 싶다. 그런데 너무 귀찮아서 빗자루만 손에 쥐고 벌레가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다. 기분은 아무 생각이 없이 무난한 기분이다. 벌레가 다 사라지면 벌레가 있던 자리를 물걸레로 닦을 것이다.	내용: 사다리를 타고 가서 도로를 지나 자전거를 타고 텅커벨이 된다.
EBDT 총점: 19/45; 애착: 혼란; 양육태도: 방임	EBDT 총점: 22/45; 애착: 혼란; 양육태도: 방임
사례 2	사례 4
	
제목: 없음	제목: 3, 2, 1
내용: 학교에서 수업 후 밥 먹고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는 중	내용: 폭탄머리 사람이 터지기 직전이다.
EBDT 총점: 20/45; 애착: 불안; 양육태도: 억압	EBDT 총점: 24/45; 애착: 회피; 양육태도: 억압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서행동 그림검사(Emotional & Behavioral Test; EBDT)가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성인 애착과 양육태도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BDT와 성인 애착 척도(ECR-R),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를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문제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분석 결과, EBDT에서 나타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그림과 내용에서 우울, 무기력 등의 정서를 드러냈다. 특히, 내면적 위축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차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회피 차원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애착 유형이 일반 성인의 애착 유형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 성인의 안정 애착 유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김광은, 2004; Bartholomew & Horowitz, 1991; Murphy & Bates, 1997), 본 연구에서는 불안과 회피 차원이 모두 높은 두려움형 애착을 가진 양육자가 다수로 나타났다. 이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며 겪는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애착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Davila, Burge & Hammen, 1997).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 중 특히 우울과 불안이 두드러진다는 점(윤혜미, 최문정, 2006)을 고려할 때, 불안 차원이 높은 양육자는 타인의 애정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감정 표현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애착은 우울 및 불안과 관련이 있으며(김나경, 양난미, 2016; 김은영, 이지은, 2015), 본 연구에서도 내면적 위축

점수가 높은 경우 불안 차원을 예측한다는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EBDT 하위 요인 중 외현화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적대적 표출이나 구조적 불균형이 회피 차원을 예측하지 못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에서 불안 차원이 불안 및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회피 차원이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Allen, Hauser & Borman-Spurrell, 1996). 그러나 본 연구는 회피 차원이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며,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불안 차원과 회피 차원이 동시에 높은 경우에는 불안이나 우울증에 취약하지만, 회피 차원만 높은 경우에는 불안 및 양육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낮고 우울증에도 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문영경, 민현숙, 2008; Murphy & Bates, 1997). 회피 차원이 높은 성인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자신의 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타인에게서 오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투르며, 이는 그림검사 결과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불안 차원은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회피 차원은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성인 애착과 EBDT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심리적 문제들이 회피 차원보다 불안 차원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양육자는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빈번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윤혜미, 최문정, 2006), 이를 평가할 수 있는 EBDT

의 내면적 위축은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EBDT의 경로분석 결과, 그림이나 내용에서 적대적 표출 하위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억압형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면적 위축 하위 요인 점수가 높은 경우, 부모는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무시하거나 빠르게 전환하려는 축소전환형 양육태도가 예측되었다. 또한, 구조적 빈곤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는 감정코칭형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방임형은 EBDT 하위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적대적 표출이 억압형 양육태도를 예측한다는 결과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녀에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부정적 감정 표현을 억압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적대적 표출이 감정표현불능증을 예측한다는 결과(김수영, 임나영, 2019)가 있으며, 감정표현불능증은 정서인식을 감소시키고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독재적 양육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Janik McErlean & Lim, 2020). 이러한 억압적 태도는 감정 표현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면적 위축이 축소전환형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것은, 부모가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경우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공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Cox et al., 1987; Pelaez et al., 2008)와 일치하며, 우울한 부모가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

지 못하고 자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구조적 빈곤 점수가 낮을수록 감정코칭형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은 감정코칭에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EBDT에서 구조적 빈곤이 높은 경우는 묘사가 적고, 그림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거나 빈약한 그림을 통해 무기력 및 우울 정서가 드러난다(임나영, 양은주, 2016). 반대로, 구조적 빈곤이 낮은 경우는 그림에 다양한 장식과 표현이 추가되어 부모의 높은 의욕과 에너지를 반영한다. 감정코칭형 양육태도는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높은 정신적 에너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Gottman, Katz & Hooven, 1996). 따라서, 구조적 빈곤이 낮은 부모가 감정코칭형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감정코칭형 양육태도의 방임형은 EBDT 하위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무관심한 부모와 우울한 부모와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결과(Lipps et al., 2012)와 일치한다. 또한, 무관심하거나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의 정서·행동 문제보다는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기존 연구 결과(Calvete, Orue & Gámez-Guadix, 2013; Miller, Dilorio & Dudley, 2002; Rodriguez, 2010)와도 부합한다.

셋째, EBDT의 그림 반응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임상 집단의 EBDT 그림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특성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고립감이나 무기력 상태가 자주 드러났으며, 공격성은 직접적 표현보다는 간접적 방식으로 나

타하는데, 이는 사회적 규범이 공격적 감정의 직접적 표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Janik McErlean & Lim, 2020)으로 해석된다.

EBDT 그림에서 나타난 단순함이나 구조적 불균형은 사회적 고립이나 무기력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반영하며, 공격성이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특성은 외현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그림 반응 특성은 EBDT가 개인의 내면적 정서 상태와 행동적 문제를 시각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EBDT는 단순히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된 외현화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의 단순함과 구조적 불균형은 내재화 문제, 간접적 공격성은 외현화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주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EBDT는 정서 및 행동문제를 평가하고 개입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EBDT가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통해 성인 애착과 양육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BDT 그림에서 우울, 자기비하, 무기력 등의 표현이 두드러질수록 내면적 위축 점수가 높아졌으며, 이는 불안정한 애착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특히, 내면적 위축은 불안 차원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고, 우울과 불안 같은 내재화된 심리적 문제가 회피 차원보다 더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내면적 위축 점수가 높은 부모는 축

소전환형 양육태도를, 적대적 표출 점수가 높은 부모는 억압형 양육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구조적 빈곤 점수가 낮은 부모는 감정코칭형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임상 범위 집단의 그림은 단순하고 구조적으로 불균형하며, 이는 사회적 고립감과 무기력 같은 내재화 문제를 반영하였다. 또한, 공격성은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EBDT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가 유아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 무기력함,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모의 정서적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자녀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감정적으로 건강한 양육태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BDT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를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은 전국적으로 모집되었으나, 표본 규모가 적고 지역 및 성별 분포를 고려한 표본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EBDT의 예측력을 살펴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보다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비대면 방식이 그림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그림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피검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EBDT가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성인애착과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에 초점을 맞추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EBDT 그림검사를 맹분석이 아닌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심리적 문제를 객관적 지표인 점수를 통해 애착 및 양육 태도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모상담 방향 설정에 필요한 임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육자의 심리적 문제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본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BDT를 통한 부모의 심리 상태 평가는 상담 현장에서 부모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EBDT를 부모상담 및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유용한 투사적 그림검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미, 이승연 (2016). 만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전업주부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질적 탐색. **육아지원연구**, 11(4), 137-172.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나경, 양난미 (201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2), 217-238.
- 김나경, 임나영 (2020). 청소년 정서행동 그림검사 (EBDT) 에 나타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측 변인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20(1), 209-226.
- 김단비 (2022). **EBDT에 나타난 미취학 아동 양육자의 애착과 양육태도 예측변인 연구**.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임나영 (2019). EBDT 그림검사에 나타난 대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예측변인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9(2), 1-18.
- 김영주, 송연숙 (2007). 1세-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지식과 양육 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75-493.
- 김은영, 이지은 (2015). 대학생들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 경험적 회피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6(3), 345-358.
- 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 유아의 애착,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1(3), 175-202.
- 문영경, 민현숙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가정과 삶의 질 연구**, 26(5), 165-176.
- 박상은, 임나영 (2017). 청소년 정서행동 그림검사에 나타난 초기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 특성 연구 -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13(1), 167-189.
- 박지언, 이은희 (2008).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69-389.
- 안명희 (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오경자, 김영아 (2010). **성인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 (ASR)**. 서울: (주)휴노.
- 윤혜미, 최문정 (2006). 어머니 우울과 부부갈등이 방임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7, 21-44.
- 이경숙, 엄혜련, 정영운 (2004). 잠재된 비행청소년의 애착유형 (AAI) 에 따른 아동기 양육경험과 문제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511-532.
- 이근애, 전효정, 고은경 (201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7), 1211-1227.
- 이대균, 황주미 (2008).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 특성과 어머니됨의 변화 과정.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71-403.
- 임나영, 양은주. (2016). 청소년 정서행동문제 그림검사 (Emotional & Behavioral Drawing Test; EBDT)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6(1), 1-16.
- 임나영 (2023). **EBDT(Emotional & Behavioral Drawing Test) 정서행동 그림검사**. 서울:(주)인싸이트
- 정경아, 김봉환 (2010).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인간이해**, 31(1), 89-104.
- 정정호, 김선숙, 김희주, 장혜림, 김시아 (2021). 코로나 19시기,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양육자의 양육경험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학 교사회복지**, 55, 153-185.
- 한교은, 전성희 (2020). 기혼여성의 성인애착과 부부친밀감 평가도구로서의 모자화(Mother and Child Drawings) 활용가능성. **예술심리치료연구**, 16(4), 01-21.
- Adam, E., K., Gunnar, M. R., & Tanaka, A. (2004). Adult attachment, parent emotion,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Child development*, 75(1), 110-122.
- Allen, J. P., Hauser, S. T., & Borman-Spurrell, E. (1996). Attachment theory a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equelae of severe adolescent psychopathology: an 11-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54.
- Ammerman, R. T., Kolko, D. J., Kirisci, L., Blackson, T. C., & Dawes, M. A. (1999). Child abuse potential in parents with histories of substance use disorder. *Child Abuse & Neglect*, 23(12), 1225-123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
- Calvete, E., Orue, I., & Gámez-Guadix, M. (2013). Child-to-parent violence: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Journal of*

- Interpersonal Violence*, 28(4), 755-772.
- Choi, H., Dancy, B. L., & Lee, J. (2013). Raising children in America: Korean parents' experience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6), 508-513.
- Cox, A. D., Puckering, C., Pound, A., & Mills, M., (1987). The impact of maternal depression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8(6), 917-928.
- Davila, J., Burge, D., & Hammen, C. (1997). Why does attachment styl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826.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Goodman, S. H., & Gotlib, I. H. (2002).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Mechanisms of risk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Washington, DC.
- Gottman, J. (1997). *The heart of parenting: Raising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Gottman, J., & 남은영.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코칭**. 서울: 한국경제신문.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
- Hooper, E., Feng, X., Christian, L., & Slesnick, N. (2015). Emotion expression, emotionality, depressive symptoms, and stress: Maternal profiles related to child outcom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7), 1319-1331.
- Ivanova, M. Y., Achenbach, T. M., & Turner, L. V. (2022). Associations of parental depression with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meta-analyses of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ffects. *Journal of Clinical & Adolescent Psychology*, 51(6), 827-849.
- Jain, M., Singh, A., Kar, S. K., Weiner, I. B., & Kuehnle, K. (2017). *Projective Assess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ttps://doi.org/10.1016/B978-0-12-809324-5.05058-6>
- Janik McErlean, A. B., & Lim, L. X. C. (2020).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 alexithymia and aggression in emerging adults. *Journal of Family Issues*, 41(6), 853-874.
- Jeon, J. (2015).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 statistical modeling of complex social phenomenon: Focusing on SEM, path analysis, or multiple regression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Engineering*, 9(5), 1634-1642.
- Katz, L. F., & Windecker-Nelson, B. (2006). Domestic Violence, Emotion Coaching,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1), 56-67.

- Kobak, R., Cassidy, J., Lyons-Ruth, K., & Ziv, Y. (2006). Attachment, stress, and psychopathology: A developmental pathways model.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Theory and Method* (pp.333-369). John Wiley & Sons, Inc..
- Kujawa, A., Dougherty, L. E. A., Durbin, C. E., Laptook, R., Torpey, D., & Klein, D. N. (2014). Emotion recognition in preschool children: Associations with maternal depression and early parent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6(1), 159-170.
- Lipps, G., Lowe, G. A., Gibson, R. C., Halliday, S., Morris, A., Clarke, N., & Wilson, R. N. (2012). Parenting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in four Caribbean societie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6(1), 1-12.
- Maharani, F. N. T., Wijayanti, A. P., La Kahija, Y. F., Dewi, K. S., & Ediati, A. (2023). Assessing Attachment Using Projective Tests: A Scoping Review on Adolescent and Adult Studie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sychological Studies (ICPsyche)*, 4(175-190).
- Masling, J. M. (1997). On the nature and utility of projective tests and objective tes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2), 257-270.
- Miller, J. M., Dilorio, C., & Dudley, W. (2002).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s reaction to conflict: is there a relationship?.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1(6), 463-468.
- Mills, R. S., Freeman, W. S., Clara, I. P., Elgar, F. J., Walling, B. R., & Mark, L. (2007). Parent proneness to shame and the use of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3), 359-374.
- Murphy, B., & Bates, G. W. (1997). Adult attachment style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6), 835-844.
- Pelaez, M., Field, T., Pickens, J. N., & Hart, S. (2008). Disengaged and authoritarian parenting behavior of depressed mothers with their toddl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1(1), 145-148.
- Rholes, W. S., Simpson, J. A., Kohn, J. L., Wilson, C. L., Martin III, A. M., Tran, S., & Kashy, D. A. (2011). Attachment orientations and depression: A longitudinal study of new par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4), 567.
- Rodriguez, C. M. (2010). Parent-child aggression: Association with child abuse potential and parenting styles. *Violence and Victims*, 25(6), 728-741.

Research on Predicting Attachment and Parenting Styles Through Emotional & Behavioral Drawing Test(EBDT) in Caregivers of Preschoolers

Kim, Dan-Bee · Lim, Na-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 Emotional & Behavioral Drawing Test(EBDT) could predict adult attachment and parenting styles of caregivers of preschoolers. A total of 117 preschool caregivers were sampled, and their drawing and survey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path analysis, the predictive power of the four sub-factors of the EBDT(hostile expression, internal withdrawal, structural poverty, structural imbalance) was examined in relation to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ECR-R) and Emotion Coaching Parenting Test. The results revealed that “internal withdrawal” predicted anxious attachment in adults, “hostile expression” predicted a controlling parenting style that suppresses children’s emotions, “internal withdrawal” predicted a dismissive parenting style that redirects negative emotions, and “structural poverty” negatively predicted emotion coaching parenting sty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BDT, as a projective drawing test, can predict other objective measures using its standardized scoring system, bridging the gap between projective and objective tests. Furthermore, the EBDT provides both quantitative scores and qualitative insights, enabl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caregivers’ internal stat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aregivers of preschoolers. The EBDT serves as foundational data for early intervention, supporting effective parenting strategies to foster emotionally healthy children.

Key words: EBDT, Projective test, Adult attachment, Parenting style, Caregivers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 Art Therapy, Department of Counseling & Therapy, Gachon University.

Email: psyart@gachon.ac.kr

